

코리아세일페스타 車 최대 10% 할인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국내 완성차와 타이어 등 자동차업체가 대거 참여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이 기간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연말 자동차 구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주요 인기 차종의 할인과 함께 전기차 구매를 특별 지원하는 '기아 세일 페스타' (KIA SALE



기아차 선착순 8000대

전기차 등 8종 이달까지

1% 금리 60개월 장기 할부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푸짐

현대차 승용·RV 1만3000대

투산 250만원·넥쏘 100만원

11월 출고 추가 30만원 혜택

타이어업체도 20~40% 할인

FESTA)를 실시한다.

총 8개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한 달간 총 8000대 선착순 판매로 진행된다.

정상가 대비 차종별 할인율은 모닝 2~4%, K3 3~5%, K5(HEV 포함) 3~5%, K7(HEV 포함) 5~7%, 니로 HEV 5~7%, 스토닉 7~10%, 스포티지 7%, 모하비 2~3% 등이다. 일부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최저 1.0%, 최장 60개월의 저금리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이 기간 구매 고객은 차종별 주력 트림 기준으로 모닝은 최대 84만원, K3 118만원, K5 139만원, K5 HEV 157만원, K7 245만원, K7 HEV 266만원, 니로 HEV 231만원, 스포티지 217만원, 모하비 218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아차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200대 한정으로 쏘울 EV 2~5%(50대), 니로 EV 2~3%(150대) 특별 할인도 제공한다.

이밖에 해당 기간 SNS 계정에 기아차를 배경으로 '엄지척 사진'을 업로드하는 엄지척 챌린지, 기아차 전시장 방문 이벤트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00만원권과 황성한우 세트, 영광굴비 세트 등 경품도 증정한다.

현대자동차도 쏘나타와 더 뉴 그랜저, 싼타페 등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RV) 8개 차종 1만3천대를 대상으로 수량 소진시까지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로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HEV) 10%, 쏘나타 3~5%, 더 뉴 그랜저 2%, 투산 8%, 더 뉴 싼타페(디젤) 2~3%, 코나EV 5~

8%, 넥쏘 100만원 등을 할인해준다. 일부 차종은 2.5% 저금리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차종별 주력 트림(등급)을 기준으로 아이오닉 HEV는 최대 285만원, 쏘나타 157만원, 쏘나타 HEV 102만원, 더 뉴 그랜저 101만원, 투산 250만원, 더 뉴 싼타페 105만원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11월 출고 시 추가 30만원 혜택까지 가능하다.

쉐보레는 말리부, 트랙스, 이쿼닉스 구매 고객에게 1500대 한정으로 차량 가격의 최대 10%를 지원한다. 또 기존 보증 기간에 2년을 추가 적용해 5년 혹은 10만km까지 확대된 보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래버스 구매 고객에게도 5년 혹은 10만km까지 확대된 무상 보증 서비스를 하며, 트래버스 구매 고객에게는 콤포트라이프 이용 시 200만원의 현금도 지원한다.

완성차 업체와 함께 타이어업체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여해 20~40%의 타이어 할인 행사를 한다.

우선 금호타이어는 오는 15일까지 프리미엄 제품 20% 할인 등을 제공한다. 승용 및 SUV 차량용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구매 시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하고, 교체대행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행사 제품을 구매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최대 30% 타이어 할인과 무료 픽업·딜리버리 서비스, 100% 당첨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넥센타이어도 최대 40% 할인과 사은품 증정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렉서스 ES 300h '올해의 차' 30일까지 시승 이벤트

렉서스코리아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ES 300h'가 2020 컨슈머인사이트(ConsumerInsight) 소비자체험평가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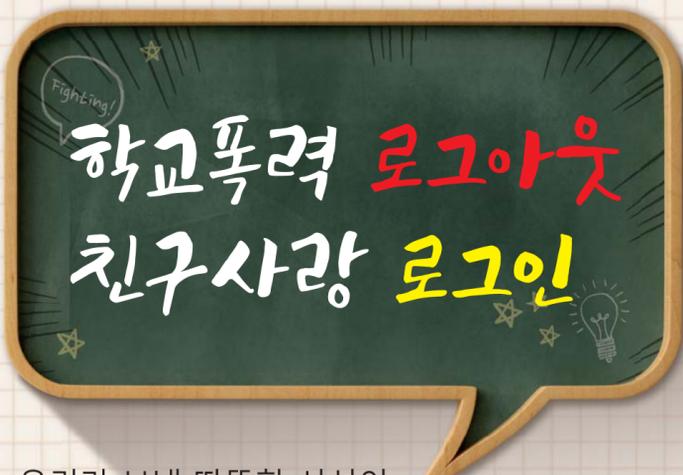
소비자체험평가 '올해의 차'는 소비자 전문 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평가부분 중 하나다. 소비자가 새 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평가되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차를 선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조사는 1년 이내 새 차 구입자의 제품 만족도(TGR)와 초기품질(TGW-i), 3년 이내 새 차 구입자의 비용대비가치(VFM), 향후 2년 내 구입 예정자의 디자인경쟁력(Design) 항목에 대해 6만2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렉서스코리아는 이번 '올해의 차' 선정에 기념해 전국 렉서스 전시장 및 시승센터에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시승회를 실시한다. 시승하는 모든 고객에게 감사선물로 렉서스 홍보 대사의 사인 골프공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우리가 보낸 따뜻한 시선이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갑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제네시스 SUV 'GV70' 공개



제네시스는 올해 공개 예정인 럭셔리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모델 'GV70'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현대차 제공>

쏘렌토·싼타페 '가솔린 2.5 터보' 계약 실시

국내 인기 SUV 모델인 기아차의 쏘렌토와 현대차의 싼타페가 가솔린 2.5 터보 모델 계약을 2일 개시했다.

우선 기아차의 4세대 쏘렌토 2.5 터보 모델은 앞선 모델인 3세대 쏘렌토 가솔린 2.0 터보 모델에 비해 배기량을 늘렸다.

또 '스마트스트림 G2.5T'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해 최고 출력 281마력(PS), 최대토크 43.0kgf·m의 동력 성능을 구현한다.

엔진에는 '듀얼 퓨얼 인젝션(Dual Fuel Injection)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쏘렌토 가솔린 모델 대비 14.5% 개선된 11km/l 연비를 달성했다.

이밖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된 디자인 트림 '그라비티'와 외장 색상 '런웨이 레드'를 가솔린 모델에도 운영하고 그라비티 트림에 20인치 블랙 알루미늄 휠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가솔린 모델에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Active Engine Sound)가 적용, 엔진과 크렐(KRELL)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각각의 사운드를 합성한 엔진음이 특징이다.

쏘렌토 가솔린 2.5 터보 모델 가격은 ▲트렌디 2925만원 ▲프레스티지 3210만원 ▲노블레스 3505만원 ▲시그니처 3789만원 ▲그라비티 3887만원이다.

현대차의 더 뉴 싼타페 가솔린 2.5 터보 모델은 기존 디젤 모델과 같은 사양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3가지 트림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현대차 더 뉴 싼타페(위)와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엔진으로 최고출력 281마력(PS), 최대토크 43.0kgf·m의 힘을 발휘한다.

쏘렌토와 마찬가지로 엔진에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와 '듀얼 퓨얼 인젝션 시스템'이 적용, 기존 가솔린 2.0 터보 모델 대비 14%가량 개선된 10.8km/l 연비를 달성했다.

싼타페 가솔린 2.5 터보 모델 가격은 ▲프리미엄 2975만원 ▲프레스티지 3367만원 ▲캘리그래피 3839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